산업통상부 지역에는 성장을, 기업에는 활력을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3.25.(수) 11:00 < 3.26.(목) 조간 > 배포 2026. 3. 25.(수)

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!
「K-패션 인사이트 토크」 개최

- 정부, 협회, 의류제조·패션테크·브랜드·유통기업이 한자리 모여
- K패션과 AI혁신의 만남, 글로벌 무대 위 K패션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설계 논의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3.25일(수)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패션업계와 「K-패션 인사이트 토크」를 개최하였다.

금번 간담회는 K팝, 드라마, 뷰티, 푸드 등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 속 정부와 패션산업 전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K-패션 육성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지혜를 한데 모으고자 마련되었다.

이날 산업부는 패션산업을 국가 핵심 소비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정책방향(①산업 밸류체인 전반 AX 접목, ②글로벌 K-패션 스타브랜드 육성, ③K-패션 글로벌 경쟁력 강화, ④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)을 제시하였다.

이어 패션협회는 최근 아시아 시장 B2B 수출 증가세 등 수출 동향*과 함께, 수출 마케팅 및 패션 IP 보호 지원, AI기반 수요예측 모델 실증 등 주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기업들은 사업추진 계획과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.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.

* '26.1~2월 의류 수출액(전년 동기대비, 백만불) : 중국(77→91), 일본(30→35), 홍콩(11→33)

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,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분기 내 「K-패션경쟁력 강화방안(가칭)」을 수립할 계획이다.

간담회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"최근 패션산업은 AX·DX전환, 공급망 경쟁 심화, 환경규제 강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, 한류, K컬쳐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브랜드, 유통, 테크, 소재, 제조 등 우리 패션기업들이 다함께 대응한다면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"며 "이에 발맞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.

담당 부서	첨단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	책임자	과 장	조성경 (044-203-42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형 (044-203-428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K-패션 인사이트 토크(간담회) 개요**

□ 개요

○ 일시/장소 : ‘26.3.25(수), 14:00~15:30 / 섬유센터 17층 섬유패션클럽

○ 참 석 자 : 산업부, 한국패션협회, 주요 기업

- **(정부)** 산업부 산업성장실장, 섬유탄소나노과장
- **(협단체)** 한국패션협회
- **(기업)** 패션기업, 디자이너 브랜드, 유통, 테크, 의류제조기업 등

* 삼성물산, 신성통상, 안다르, 하고하우스, 잉크, 리이, 이랜드월드, 엘로우, 바이스벌사, 스튜디오랩, W컨셉, 더현대글로벌, 무신사 등

○ 주요 논의사항

-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의견 청취 (산업부)
- 수출 여건 및 확대 방안 (협단체)
- 기업별 추진사항 및 애로·건의사항(기업)

□ 세부 일정

시 간	세부 내용	비 고
14:00~14:02 (02′)	▸ 사진촬영	전체(라운지 이동)
14:02~14:05 (03′)	▸ 참석자 소개	패션협
14:05~14:10 (05′)	▸ 모두 발언	산업성장실장
14:10~14:20 (10′)	▸ 수출 여건 및 확대 방안	패션협
14:20~15:20 (60′)	▸ 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의견 개진 ▸ 업계 애로·건의사항 및 토론	참석자
15:20~15:30 (10′)	▸ 마무리 발언	산업성장실장